

제2장 고분유적

1. 창암리 토광묘(倉巖里 土壙墓)

창암리 토광묘는 주산면 창암리 마을 동단(東端)에서 남쪽 구릉을 넘어, 남쪽이 넓게 트인 반월형의 골짜기 남사면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고분은 1977년 봄 대천에 사는 주민이 증조부의 묘소를 이장하다가 발견하여 부여박물관에 매장문화재발견 신고로 접수됨으로써 조사되었다. 그러나 묘소 이장(移葬) 작업과정에서 이 고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유구가 완전히 파괴된 채 토기호(土器壺) 2점, 철제 환두대도(環頭大刀)·철부(鐵斧)·철검(鐵劍)·철모(鐵矛) 각 1점 등 총6점의 일괄 유물만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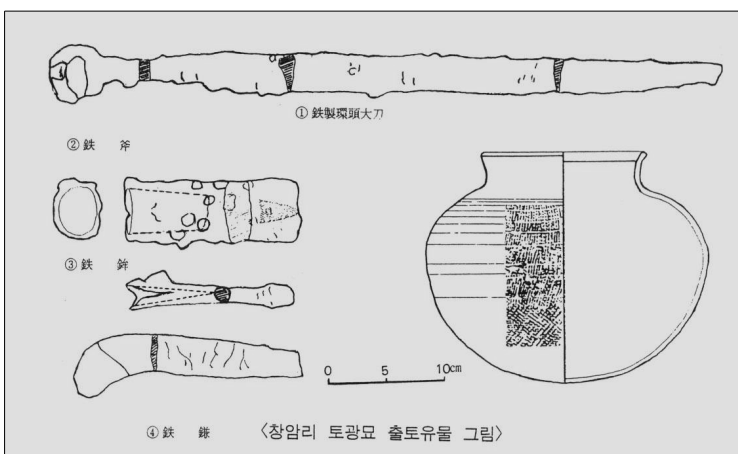
발견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본래의 지표에서 40cm 정도 파고 들어가 토기 2점의 구연부가 드러났으며, 토기의 아래층에서 철제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또 이장을 위해 유구를 파괴할 때 석제(石製)의 구조물이 전혀 없었으며, 출토 지점을 덮었던 흙이 주변의 황갈색 사질토와는 달리 검고 미세한 부식토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 유구가 원래 토광묘였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철제 유물의 출토로 인하여, 보고자는 이 토광묘의 피장자가 출신 성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특수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환두대도 출토 위치로 보아 장축(長軸)은 동서 방향, 두향은 서침(西枕)인 듯하다.

참고 : 池健吉, 『忠南西海岸地方의 百濟古墳 二例와 出土遺物』, 『百濟文化』 10. 1977.12.

2. 구룡리 석실분(九龍里 石室墳)

웅천읍 구룡리 석실분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상정산 남쪽사면 중복(中腹)의 해발 25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방학 중에 칩뿌리를 캐던 학생들에 의해 발견되어 공주사범대학 안승주(安承周) 교수가 1977년 여름 확인·조사한 이 고분은 조사 당시 무덤 벽의 상당 부분이 제거되어 있었다. 따라서 북벽 등 일부 석벽(石壁) 잔구(殘構)의 상태를 통해 석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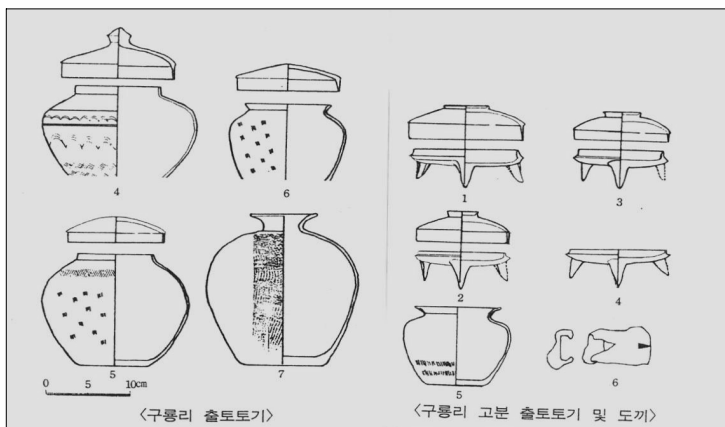
구조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玄室)의 크기는 길이 272cm, 너비 128cm이며, 높이는 북벽과 비슷한 92cm 정도로 보인다. 동벽과 서벽은 위로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쌓은 맞조임식이다. 파괴된 채 발견된 길이 150cm 정도의 돌 5



개가 천정석(天井石)이었으리라 생각되어, 천정석의 황혈식 석실분임을 알 수 있다.

남북 장축(長軸)에 남쪽으로 연도(羨道)가 설치되어 있는 이 고분에서는 현실의 북쪽 바닥에서 고화도(高火度)의 토제(土製) 두침(頭枕)이 발견되었으며, 녹유호(綠釉壺) 1점, 유개호(有蓋壺) 3점, 무개호(無蓋壺) 3점, 삼족토기(三足土器) 4점, 철부(鐵斧) 1점 등 13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 중 녹유호는 파란 잿빛의 녹유가 경(頸)과 견부(肩部)에 많이 남아 있고, 몸체와 바닥은 녹약(祿藥)이 대부분 산화되어 없어졌으나, 기포(氣泡)가 있는 군데군데에 조금씩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호(壺) 전면에 걸친 인공적 시유(施釉)임이 분명하다.

백제 후기에 유약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로 주목되고 있다.

보고자는 이 고분을 구조 형식과 부장된 토기로 미루어 백제 후기로 편년하면서, 부장 유물의 양이나 녹유

호의 존재로 보아 피장자가 백제후기 서해안 지역의 토호(土豪)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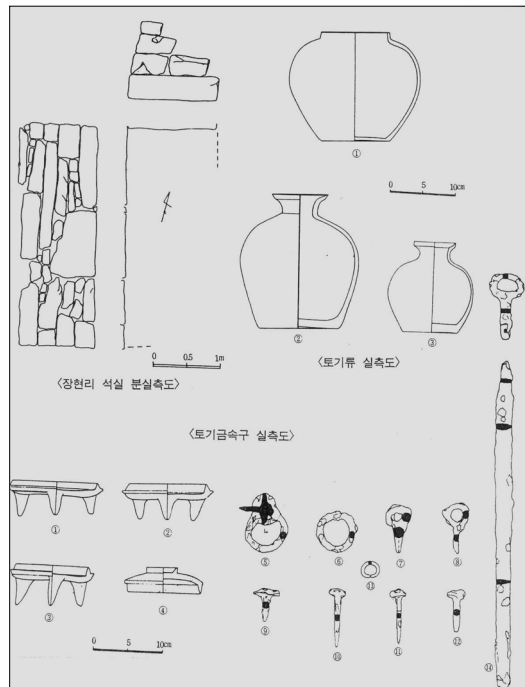
한편 이 고분은 여타 백제 고분에 비해 부장 유물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교란 상태로 수습된 이 유물은, 제보자 증언에 따르면 대체로 피장자의 우측 발 아래 부분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인공적으로 시유된 녹유호는 광견형(廣肩形) 평저호(平底壺)로써, 백제 후기에 유행한 토기의 한 형식이다. 유개호와 무개호 모두 광견형이며, 다양한

문양을 혼합 시문하였다. 또 삼족토기의 다리는 각을 낸 것과 원형의 두 가지가 있어, 이들이 동일 시기에 혼용된 것임을 알게 해준다. 아울러 현실의 바닥에는 돌을 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생토 바닥에 시신을 그대로 안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 安承周, 「保寧 九龍里 百濟古墳과 出土遺物」, 『百濟文化』 10. 1977. 12.

3. 장현리 석실분(長峴里 石室墳)

오서산 남쪽으로 이어지는 낮은 지맥의 남단에 위치한 청라면 장현리 고분은 1978년 부여박물관에 의해 조사될 당시 남벽과 동벽은 모두 파괴되어 있었다. 서벽은 반듯하게 떼어낸 방향에 가까운 청석을 가지고 안쪽으로 약 10도 가량 경사지게 쌓아 올렸으며 북벽은 맨 아래에 긴 장방형의 돌을 놓고, 그 위로는 짧은 방향의 할석(割石)을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 석실 바닥은 청석 계통의 할판석들을 등성등성 깔아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옆에서 발견된 1.2m 가량의 자연판석(自然板石)은 석실 개석(蓋石) 중의 한 개로 생각되어, 이 고분은 길이 320cm, 너비 130cm, 높이 120cm의 남북 장축(長軸) 장방형 횡혈식 석실분으로 추정된다.



출토 유물로는 백제 후기의 토기 중 빈출(頻出)하는 기형(器形)의 하나인 무경호(無頸壺) 1점, 기표(器表)에 넓게 시약이 발라진 토기병(土器瓶) 2점, 원추형 삼족의 삼족토기 3점, 도신(刀身)과 환두부(環頭部)가 분리된 특수한 형식의 추정 전장 약 67cm의 철제 환두대도 1점, 도금상태가 좋으며 타원형에 가까운 금동제 세환식(細環飾) 1점 외, 관정(棺釘) 17점, 관 고리 2점 등이 있다. 편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보고자는 무경호의 존재와 환두대도의 제작기법으로 미루어 이 고분의 축조 연대를 백제 후기로 설정하는 듯하다.

이 장현리 고분은 주택 개축을 위한 삭토 작업 중 노출되었다. 거의 평탄지에 가까운 낮은 지면에 봉토도 없이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백제 고분이 구릉 위, 사면의 중복(中腹) 또는 능선 등에 위치하는 점과 비교할 때, 입지상 매우 특이한 면을

보인다. 구조상 남북 쪽으로 관을 넣고 밖에서 벽을 쌓은 횡구식을 보이지만, 이 지역의 여타 고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연도(羨道)가 설치된 횡혈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池健吉, 「保寧 長峴里 百濟古墳과 出土遺物」 『百濟文化』 11. 1978. 12

4. 보령리 고분군(保寧里 古墳群)

주포면 보령리 고분군은 1983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의 지표조사 과정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어 1984년 조사되었다. 옛 보령현의 진산(鎭山)인 진당산 남쪽 기슭에 있는 이 고분들은 사태(沙汰)나 식목작업 등으로 인하여 원형이 손상되었으며, 확인 당시 이미 대부분 도굴된 상태였다. 총 60여 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중 12기가 조사 보고되었다.

조사 결과 이 고분들의 유형은 석실의 천정을 궁륭식(穹窿式)으로 올리며 좁힌 다음 판상할석(板狀割石)으로 덮은 것, 장방형 평면에 벽을 약간 안쪽으로 좁혀 쌓은 뒤 판상석(板狀石)을 옆으로 걸쳐 놓은 것, 퇴화·소형화 되어 작은 석곽처럼 만들어진 것 등의 3종류로 구분되었다. 유물로는 병형토기(瓶形土器)와 개배(蓋杯) 등이 출토되었고, 무덤의 규모는 비탈의 위쪽에 있는 것일수록 크다. 축조 연대를 6세기 경으로 생각하는 보고자는 이 무덤을 백제의 새로운 마을을 형성한 지배층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고분들은 모두 구릉 남쪽 사면의 중턱에 위치하여, 공주·부여지역 백제 고분과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횡구식 석실분이 5기, 횡혈식 석실분이 7기이다.

벽면의 축조에서는 북벽과 남벽에서는 판상석(板狀石)을 이용하고 있으나, 동벽과 서벽은 할석을 이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또 12기 모두 남벽이 문틀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묘실 입구의 형식과 폐쇄 방법에서의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중 횡혈식인 3호·5호 석실분은 묘실의 내외를 연결하는 완전한 배수구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퇴화형도 있어 완전한 배수구에서 퇴화형으로 이동해 가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또 두향(頭向)이 확인되는 1호·3호·6호 횡혈식 석실분은 모두 북침(北枕)을 하고 있다.

도굴로 인하여 출토 유물은 빈약하지만, 병형토기와 개배가 세트 출토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큰 수확이다. 또 유물로 보아 조영 연대는 5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경으로 판단되는데, 대체로 보아 횡혈식 석실분은 6세기 중반 이전, 횡구식 석실분은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 : 成周鐸, 車勇杰, 『保寧 保寧里 百濟古墳發掘調查報告書』, 충남대백제연구소, 1984.

5. 명천동 고분군(鳴川洞 古墳群)

보령시 명천동에 위치한 이 고분군은 공주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 지역에는 약 15기 정도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나, 그 중 밀집도가 높은 9기의 황혈식 석실분을 1995년 공주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하였다. 이 고분군의 입지는 동서로 길게 늘어진 구릉의 남향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미 심한 도굴로 원형의 파괴는 물론 출토유물도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나, 이 중 6기는 천정이나 연도 등 고분 구조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원상은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 고분은 황혈식 석실분으로써, 동서로 전개되는 구릉의 남향 경사면에 축조되었다. 9기의 고분이 상하 2열로 배치되어 있는데, 정형적 배치는 아니지만 서로 일정한 간격은 유지하고 있다. 등고선과 직교하도록 장축을 맞추어 경사면 하단 중앙부에 입구와 연도를 설치하고 할석이나 괴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특히 묘실의 천정 구조는 조임식으로 축조하고자 한 의도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백제 황혈식 석실분의 천정 가구(架構) 수법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명천동 고분군과 같은 천정 조임 수법이 세련화 되면 궁륭식 천정 구조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출토 유물은 백제계 태환(太環), 금동제 이식(金銅制 耳飾) 정도이나, 고분의 축조 기술로 보아 5세기 말~6세기 초반에 축조된 백제 고분으로 여겨진다.

참고 : 李南奭, 李勳 『保寧 鳴川洞 百濟古墳群-1995년도 발굴조사-』 공주대학교박물관, 1996.

6. 소송리 석곽묘(巢松里 石槨墓)

남포면 소송리 석곽묘는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하여 1998년 5월~1999년 9월 사이에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확인되었다. 소송리 ‘가’지구에서 확인된 이 석곽묘는 1호 지석묘 매장 주체부의 남단벽을 파괴하며 축조되었다. 소형 할석을 세로쌓기와 가로쌓기로 하여 벽면을 축조하였는데, 장축(長軸)은 북서서-남동동 방향이며, 규모는 길이 140cm, 너비 60cm이다. 석곽의 바닥은 지석묘의 바닥보다 약간 높은 지점에 설치되었으며, 잡석이 부분적으로 깔려 있었다. 석곽의 북서 모서리에서 병 1점, 개배 1쌍이 출토되었다. 이 외에 2호 지석묘 하부 구조의 북단벽 쪽에서도 개배 1쌍, 단경호 1점 등 백제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는 백제시대에 이 지석묘의 하부 구조를 무덤으로 재사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호 지석묘의 하부에서 출토 유물 중 개배는 꼭지가 없는 전형적 백제 양식으로,

정연한 흔적이 관찰되며, 기벽 외면의 색조는 회청색이다. 또 단경호는 저부가 평저이고, 동체부(胴體部) 상부에 1조의 돌대(突帶)가 있으며, 최대 지름을 이룬다. 목 부분은 짧고 직립되어 있다. 1호 지식묘를 파괴하여 축조된 석곽묘에서 출토된 평저의 병은 동체부 중간의 약간 위에서 최대 지름을 이루며 목은 짧고 호형(弧形)을 이루며 구연부와 이어지면서 외반되어 있다. 이러한 기형은 보령 구룡리, 논산 표정리 출토 병과 비슷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자는 석곽묘의 축조시기를 6~7세기로 보고 있다.

참고 : 趙祥紀 외, 『西海岸高速道路(藍浦熊川)建設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本文-』
韓國文化材保護財團, 2000.

7. 연지리 고분군(蓮芝里 古墳群)

주포면 연지리 고분군은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1998년 5월~1999년 8월 사이에 고려대 매장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 조성 지점은 계사(鷄舍)의 건축이나 과수원 경작 등으로 인하여 이미 봉분을 비롯한 유구의 상당 부분이 파괴된 상태였고, 도굴의 피해까지 겹쳐 유물상은 빈약한 형편이다. 연지리에서 조사된 백제 고분은 횡혈식 석실분 26기, 횡구식 석실분 4기, 석곽묘 4기, 옹관묘 1기, 정확한 형식을 알 수 없는 석실분 15기 등 총 50기이다. 다만 입구 부분의 파괴로 인하여 형식 파악이 곤란한 석실분의 대부분은 횡구식 석실분이었으리라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제 석실분의 장축은 등고선과 직교하도록 설정되나, 연지리 고분군의 경우에는 자북(磁北)에서 동쪽으로 6°~45°정도 기울어 있다. 즉 연지리 고분군의 고분은 등고선보다는 각 고분이 속한 고분군의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조 방법은 생토면을 반 정도 파고 들어간 후 분묘를 조성하였는데, 경사의 하단부 입구에 짧은 연도를 설치하였다. 입구의 폐쇄는 판석 또는 할석을 이용하였다. 횡혈식 석실분의 경우에는 대형과 소형이 혼재하고 있다. 횡구식 석실분은 횡혈식 석실분이 소형화 또는 퇴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빈약한 출토 유물상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매납 유물은 개배·병형토기·삼족토기가 정형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병형토기는 연지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81점의 토기류 중 31점으로 가장 많은 양이며, 삼족토기도 16점이 출토되었다. 고분 중의 한 고분에서는 금동제 세환이식(細環耳飾)도 1점 출토되었다. 이 고분군의 특징은 석실분의 봉분 위쪽으로 주위에 반원형, 한 쪽이 트인 말각방형 또는 원형의 구(溝)가 둘러져 있다는 점이다.

주구(周溝)가 가장 큰 한 고분의 경우에는 고분 전체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이들 구(溝)는 대체로 대형 고분에서만 확인된다. 출토 유물과 묘실의 구조로 미루어 연지리 고분군의 횡혈식석실분은 I·II·III형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중 I·II형 횡혈식 석실분은 6세기말~7세기 전반에, III형의 횡혈식 석실분은 7세기 전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 李弘鍾 외, 『蓮芝里遺蹟』 高麗大埋藏文化財研究所, 2002.

8. 노천리 석실분(石室墳)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산15-1번지 도로 확장공사(웅천~황교)로 인한 구릉 절개지에서 발견된 이 고분은 백제시대의 연도(羨道)가 달린 횡혈식 석실분이다. 석실의 규모는 남북 길이 280cm, 너비는 133cm로 평면은 장방형이다. 벽체의 축조는 아래 부분에 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소형의 판돌을 가로쌓기하였으며, 위로 올라가면서 벽체를 꺾어 안쪽으로 경사시킨 맞조임식이다. 천정 개석은 2개의 판석을 사용하였고, 평천정을 이루었다.

현실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는 125cm, 석실의 입구는 남북 중앙이 너비 80cm 정도이고, 입구 좌우에다 문주(門柱)처럼 생긴 돌을 하나씩 세워놓았으나 형태와 크기가 서로 다르다. 석실 내부는 전체 면적에 석피를 깔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6세기말~7세기 초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다음과 같다.

- ① 향아리 : 몸통직경 23.3cm, 높이 28.5cm, 둘레 75cm, 주둥이 직경 12.3cm, 검붉은 색으로 목이 짧고 몸통부분이 둥근 토기이다.
- ② 토기병 : 몸통직경 14.5cm, 높이 17cm, 둘레 44cm, 주둥이 직경 : 6.5cm인 검붉은 색으로 목이 좁고 짧은 향아리형 토기병이다.
- ③ 단지 : 위 토기병과 비슷하며 몸통직경 14.5cm, 높이 11.5cm, 둘레 44.3cm, 주둥이 직경 9.6cm의 검붉은색 토기이다.
- ④ 삼족토기 : 세 개의 발이 삼각형으로 달려 있는 접시형 토기로써, 뚜껑이 있다. 직경 12.5cm, 높이 8.0cm(다리 4.0cm 포함), 둘레 38.3cm의 검은 회색 토기로써 2개 중 1개는 뚜껑이 깨져 있다. 1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노천리고분

- ⑤ 금동제 이식 : 직경 2.2cm의 순금으로 만든 고리로 2개가 나왔는데, 약간 부식이 된 부분이 있다.
- ⑥ 철제품편 : 형제를 알아볼 수 없이 부식된 철제 부스러기가 약간 나왔다.

참고 : 보령군지, 1991.

9. 관창리 주구묘(周溝墓)

1997년 주교면 관창리에서는 99기의 주구묘(周溝墓)가 발굴되었다. 주구묘라고 부르는 이 독특한 형태의 무덤은 시신을 묻은 매장 주체부의 주위를 돌아가면서 도랑을 관 형태인데, 관창리에서 조사된 후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여러 지점에서 점차 그 발견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창리에서 발굴된 주구묘의 대형무덤은 한 변이 20m를 넘기도 하지만, 대체로 12~15m 정도의 크기이다. 무덤의 매장 주체부는 토광을 파서 목관을 안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이미 유실되었다. 발굴된 유물은 토기류가 대부분이고 매장 주체부 뿐만 아니라 주위를 두른 도랑 내에서도 발굴되고 있다. 송국리형 옹형토기, 원형점토 대토기, 두형토기, 흑색마연토기, 와질계토기 등과 동경, 관옥 등이 출토되었다.

관창리 주구묘의 축조 시기는 원형점토대토기나 두형토기의 중심시기인 기원전 3~2세기 무렵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자는 주장하고 있다.

관창리 주구묘 유적은 1997년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하였다.

참고 :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관창리 주구묘』 1997.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총서 제6집.

10. 구룡리 고분유적

1) 석실분

보령 구룡리 고분유적은 웅천읍 구룡리 용굴마을 뒷산 해발 70~85m 정도의 낮은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웅천 IC 건설관계로 2001년 중앙문화재연구원 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백제시대 석실분 1기, 삼국시대 이후의 석곽묘 6기, 고려시대 이후의 토광묘 63기가 조사되었다.

황혈식 석실분 1기는 인근 유적인 명천동 고분, 구룡리 상정산의 석실분 유적, 그리고 보령리 고분 등에서 조사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장방형의 평면형태와 평천정 구조, 그리고

배수로 등의 축조 양상은 출토된 유물이 거의 없어 그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다른 유적의 것들과 비교했을 때 7세기 전반기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보고자는 추정하고 있다.

이 황혈식 석실분은 묘실을 완전히 지하에 두고 있으며, 장방형의 묘실에 평천정을 하고 있다. 입구는 문주석과 문지방석, 문비석으로 이루어진 문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문비석



구룡리석실분

3매로 입구를 폐쇄하고 있다. 그리고 묘도와 연결되는 배수로가 시설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석실분의 규모는 길이가 480cm, 너비는 346cm, 최대 깊이는 190cm이다.

개석은 총 4매로 덮여있는데, 1개는 교란된 상태였고, 개석 규모의 길이는 120~150cm, 너비 55~100cm, 두께 15~40cm 가량으로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장대석을 이용하였다. 개석과 개석 사이는 소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틈을 메웠으며, 개석에서 바닥까지의 깊이는 약 130cm 이다. 벽석은 주로 할석을 이용하여 5~6단까지 쌓고 있다.

유구의 장축은 남북 방향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개석과 연도에는 굴 꺾질이 노출되어 있었다.

2) 토광묘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63기에서는 자기 및 철기와 청동제품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광묘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시기 구분이 가능하며, 주로 해발 70~80m의 능선상에 위치한다. 묘광의 장축은 능선의 방향과 직교하며, 상당수의 토광묘가 경사면 아랫부분이 자연 삭평되어 결실되었다.

토광묘의 유형에는 토광묘에 목관을 사용한 것,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직장(直葬)한 것, 이단 굴광된 것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유물의 부장 양상으로는 목관의 상부 또는 내부에 매납한 것, 목관과 묘광 벽면 사이의 빈 공간에 매납한 것, 묘광의 한 쪽 장벽 일부에 타원형의 감실을 설치하여 매납한 것, 묘광의 바닥에 원형의 요갱을 파고 그 안에 매납한 것 등이 있다.

이 지역의 토광묘 조영 시기는 자기의 형태와 문양, 번조방법 등으로 보았을 때 고려 시대는 대략 12세기 말에서 14세기, 조선시대는 15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자는 주장하고 있다.

참고 : 中央文化財研究院 『保寧 九龍里 遺蹟, 2001